

16억짜리 광산구 '공공앱' 예산만 낭비

하루 이용자 70명... 운영도 엉망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광주 광산구가 운영중인 '공공앱'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민 이용률까지 낮아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산구의회와 관련 업계에선 공공앱 사업을 독점한 특정 '모바일 앱' 개발 사업자와 자치단체와의 유착·특혜 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2020~2021년 주민 간 소통을 지원하는 등 이용자들이 모바일을 통해 편리한 행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3건의 앱을 위탁, 제작했다.

A업체에 제작을 맡긴 앱은 월곡2동을 대상으로 한 '월곡톡 앱'과 스마트 솔루션 헬렌지사업으로 추진한 '광산시민행복주차장 앱', 행정과 시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광산 ON 앱' 등이다.

광산구는 앱 사업비로 '월곡톡' 10억원, 광산시민행복주차장 6억원, '광산ON 4800만원 등 총 16억 4800만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앱 하루 이용자는 월곡톡 70여명, 광산ON 30여명 등에 그쳤고, 광산시민행복주차장앱은 이용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일 열린 광산구의회 운영일 의원이 구청 직원을 통해 해당 앱에 대한 부실 운영 실태를 지적하면서 문제점이 불거졌다. 윤 의원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공공 앱을 만든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낮고 주민들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막대한 주민 혈세만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유지·관리 비용은 꾸준히 지출하면서 일부 설비는 작동 불능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운영에 필요한 센서 등도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제품과 달리 저렴한 것으로 설치 됐다"며 비위 의혹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해당 업체는 광산구를 상대로 지난 2년간 총 25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광산구 미래산업과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광산구와 컨소시엄으로 함께 참여한 경우"라면서 "관련 세부적인 사업비도

이 업체가 제시한 금액을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A업체가 광주의 공공서비스 앱 개발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와의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앱 제작 업체 관계자는 "A업체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로비를 통해 공공서비스 앱 개발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말이 파다하다. 광산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번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지자체별 특성을 응용해 짜깁기 하면 쉽게 납품할 수 있다"면서 "A업체도 광산구는 물론 남구와 서구 등 타 자치단체 사업을 독점 수주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A업체는 광주에서 광산구 25억원 비롯한 남구 16억원, 서구 5억원 등 공공서비스 앱 개발 사업을 독점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구는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곧바로 업체 선정 과정 등 관련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소촌산단에 '생명의 빛' 밝힌다

'광산미디어아트' 전... 16~25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 일대

광주 광산구는 "광주의 주요 산업단지 중 하나인 소촌산업단지를 예술로 밝히는 '2022 광산미디어아트전(展)'을 16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16일 오후 5시 30분 소촌아트팩토리에 열린다.

첨단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미디어아트전은 2018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산단비엔날레를 대신해 선보이는 행사다.

'생명의 빛'이란 주제로 이이남 작가, 윤제호 작가, 임용현 작가, 정은학 작가, Flux studio (플럭스스튜디오) 팀(박상화, 설박, 윤준영 작가), Studio Mbus(스튜디오 엠버스) 팀(노치욱, 하석준 작가) 등 국내 대표 작가들이 참여해 디지털 아트, 쌍방향(인터랙티브) 아트, 레이저 아트, 빛 조각 등 과학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체적인 전시 기획은 지역기획자인 이현남 예술감독이 맡았다.

전시는 16일부터 25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 일대에서 진행된다. 주제전 '생명의 기록 DNA'에서는 이이남 작가가 LED(엘이디) TV, 빔프로젝터, 거울 등을 활용해 자신의 DNA를 소재로 한 미디어아트를 상영한다.

기획전에서는 Studio Mbus팀(노치욱, 하석준 작가)의 '인터랙티브' 아트, Flux studio팀(박상화, 설박, 윤준영 작가)과 임용현 작가의 '미디어파사드 I, II', 윤제호 작가의 '레이저아트', 정은학 작가의 '빛의 조각' 등을 만날 수 있다.

부대행사로 광주 AI(인공지능) 기업의 제품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업체험전도 운영한다.



광산미디어아트전 '생명의 빛'

17일 오후 5시 30분, 22일 오후 5시, 23일 오후 5시 30분에는 각각 Flux studio팀, 이이남 작가, 임용현 작가가 참여하는 작가와의 대화도 마련한다.

행사 기간 주제전은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기획전은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월요일 휴관)하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광산구는 올해 행사를 시작으로 미디어아트 전시의 지속성을 위해 앞으로 매년 전시를 개최할 계획이다. 광산미디어아트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문화예술과 소촌아트팩토리 팀(062-960-3686)에서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휴먼서비스네트워크' 성과공유회...민관 협력 597 가구 자립 도와

복지·보건·교육 등 민관 협력체

광주 광산구는 최근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에서 '휴먼서비스네트워크' 운영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유회에는 50명의 사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올해 성과와 복지 자원을 공유하는 등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또 올해 복지현장을 기록한 열 번째 사례집 'Do dream(두 드림)'을 통해 지난 1년을 돌아보기도 했다.

광산구 '휴먼서비스네트워크'는 복지, 보건, 의료, 교육, 주거 등 11개 분야 148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다. 이를 통해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신속한 위기탈출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광산구는 올해 어려움에 처한 597가구에 2199건의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등 위기 해소와 자립 발판 마련을 도왔다.

광산구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선제적



광주 광산구는 최근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에서 '휴먼서비스네트워크' 운영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예방복지 실현을 위해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사람 중심'의 복지 지원 체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광주 첫 '미래교육지구' 선정

광주 광산구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교육부 '미래교육지구'에 선정됐다.

2020년 11개 지구로 시작한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산구는 광주시교육청,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과 함께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난 5월 광주시교육청과 미래교육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교육청과 광산구 지역교육협의체 구성 및 미래교육지구 사업 준비 TF팀 운영 등 필요한 준비를 마친 광산구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구상한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학교와 마을, 칸막이 없는 부서 간 협력 등 상생을 통한 교육실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광산구는 '모두를 위한 교육, 광산은 어디나 배

움터'라는 비전을 세우고, 교육협력 기반 구축과 학교자율 책임 운영,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도 선정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과 상시 소통하는 '광산구지역교육협의체'를 정례화하고, 마을별 교육자치모임, 광산교육공론장을 운영하는 등 민관학을 아우르는 '교육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와 마을을 잇는 상생형 교육 활성화,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역량 강화, 청소년 자기주도성 신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마을과 학교, 지역을 엮어 진정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 주민 누구나 배우고 학습하며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게 하는 상생·혁신의 교육 생태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첨단도서관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1만2000kg 탄소저감 효과 기대

광주 광산구는 "첨단도서관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을 통해 도서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는 20kW자가 소비용으로, 생산된 전기를 우선 사용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 연간 2만5400kWh의 에너지 생산이 예상되며, 1만2000kg의 탄소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은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민간 포함)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광산구는 2021년에 요양원, 경로당 등 3개소에 총 18.4kW의 태양광을 설치했다.

광산구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 수요조사를 진행중으로, 관심이 있는 공공·사회복지시설이 있다면 미래산업과(062-960-3674)에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



첨단도서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